

<자료>

## 히브리말 ... 몽둥이 말이고 한국말은 비단 말 — 공동번역 구약 번역자 곽노순(1938~) 구술 —1)

곽노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입니다.<sup>2)</sup> 성서 번역의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공동번역을 번역하던 당시의 일들이 자료로 기록되어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신약의 번역 부분은 전 장신대학교 교수 박창환 박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일부 들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자료로 남기기도 했지만,<sup>3)</sup> 또 당시에 구약 번역에 깊이 참여하셨던 선종완 신부님이나 문익환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곽노순 교수님 말고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당시의 일들을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녹음하여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곽노순 교수 구술]

혜화동 가톨릭 신학대학 선종완 신부님 연구실에서 주로 번역 회의를 했어요. 이것은 선 신부님과 내 사진이에요(사진 1). 여기에 문 목사님은 안 나왔는데 공동번역을 번역할 때, 혜화동 그 가톨릭 신학대학 선 신부님 연구실에서 주로 번역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사진 2) 나하고 문 목사님이에요. 이게(사진 3, 사진 4) 세 사람 다 나온 사진이에요.

\* Hartford Methodist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목원대학교 구약학 은퇴 교수.

1) 구술 정리: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전무용 국장, 조지윤 부장, 유운유 직원.  
2)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직원 3명이 2018년 11월 9일 오전 11시에 도서출판 네쌍스 사무실 (천안)을 방문하여 곽노순 교수와 박혜옥 네쌍스 대표를 만났다.  
3) 박창환, “내가 경험한 한글 성경 번역의 뒤안길”, 「성경원문연구」 35 (2014), 385-391.

신약 팀은 번역자가 7-8명인데, 우린 셋이기 때문에, 하다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번역 회의 끝날 때는 얼굴이 거의 해골들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김주병 목사님(당시 대한성서공회 총무)이 일주일에 3일 번역 회의를 해서 빨리 진행하자고 했는데, 3일씩 하다가 병이 나서, 일주일에 이틀씩밖에 못 했어요.

<사진 1> (왼쪽부터) 선종완, 곽노순



<사진 2> (왼쪽부터) 곽노순, 문익환



<사진 3> (왼쪽부터) 선종완, 곽노순, 문익환



선 신부님과 문 목사님은 모두 50대고 나는 30대였어요. 그리고 이건 목사님 댁에서 찍었던 거고요(사진 4).

<사진 4> (왼쪽부터) 곽노순, 선종완, 문익환



난 1969년 8월에 하트포트 감리교신학대학원(Hartford Methodist Seminary)에서 Ph.D.(박사) 과정 중에 있다가 1년 쉬러 한국에 왔었어요. 문익환 목사님

이 은사이기 때문에 인사하러 갔더니, 당장 내일부터 오라고.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성경 번역은 셋이 한 조를 이루어 번역 회의를 해야 되는데, 둘이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있어야 했어요.

두 분 다 나보다 20년 이상 연상이예요. 선 신부님(1915~1976)이 나보다 스물세 살 위고, 문 목사님(1918~1994)이 정확히 20년 위고. 그래서 나도, 아무리 일생 구약을 연구하더라도 히브리 원문을 대할 기회는 아주 드문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응낙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American Bible Society(미국성서공회)에 닥터 나이다(Eugene A. Nida)라고. 그분이 우리 학교 총장에게 편지를 해서 대한민국의 공동번역성서의 번역을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꼭 4년을 한국에 더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Ph.D.가 7년에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1973년에 학교로 돌아갔어요.

아시겠지만, 번역이 세 단계로 됐죠.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 하고, 한국어를 수정하는 거 하고, 그리고 교단 대표들이 읽어서 반영하는 거. 이 3단계였는데, 나는 이 첫 단계만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 계속해서 1979년에 박사 받고.

1969년에 한국에 오자마자 금방 번역자로 뽑힌 이유는, 선 신부님은 해방되고 배 타고 가서 이태리에서 유학하셨던 분이고, 문 목사님은 프린스턴대학(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다가, 도중에 6.25가 나가지고, 동경 맥아더 사령부에 통역관으로 오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공부 마치고 오셨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구약 팀은 문 목사님이 총 책임을 하고, 그렇게 공동번역성서 번역을 하셨죠. 근데 날 꼭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석사 때는 Text Criticism, 본문 비평을 했고. 하박국 선지서, 한 군데에 200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 그걸 했고. Ph.D. 때는 성서언어학을 하고, 고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문 목사님하고 나하고, 천주교는 선 신부님 혼자 시지. 그런데 셋이 이제 늘 싸우지. 아주 고지식한 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처음 석 달은 매일 싸웠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 공부하고, 한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SMU(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공부하고 해서, 대학만 네 군데 다닌 사람인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는지 암튼 모르지만, 한신대 다닐 때, 문 목사님이 하루는 한 여름에 여름방학에 이집트를 가시면서, 나보고, 히브리어를 가르쳐라, 해서, 내가 학생이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1965년에 졸업하면서 히브리어 강사를 했고.

선 신부님은 가톨릭에서 유명한 분이예요, 가톨릭은, 내가 광주에 있던 신부였다 하면, 외국 갔다 와도 광주밖에 안 가요, 유학들을 안 간대요, 그때 혼자 가신 거라고. 아주 고지식한 원주 분이시.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공동번역 할 때까지 성경이 없었어요, 가톨릭은. 라틴어로 하고. 평신도들은 알 필요 없다 해서. 그게 한스러워서 선 신부는 혼자 개인역들을, 공동번역 하기 전에 벌써 여러 십 년 했고, 문익환 목사님은 한신대 교수 하시면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동번역 프로젝트가 생기기 전부터 하시던 분이예요. 두 분은 사명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라고. 나는 사명을 없어요. 그냥 technical support만 했지요. 다 아시지만, 닥터 나이다가 쓴 책을 보면, 대개 가장 좋은 번역들은 세 사람 이상이 해야 되고, 30대가 해야 되고, 편견이 없고, 되도록 신학 전공을 안 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게 대 전제예요, 그 사람, 닥터 나이다가 얘기한. 그 분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석 달 후에는, 무슨 인연인지, 이런 식의 찰떡궁합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학문에 양보 없는 사람들. 셋이 다 그렇지. 선 신부님은 천주교에서 번역하시던 분이고, 텍스트만 갖고 말했고. 나중에는 2대 1이 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때는 개신교 대 천주교 2:1이고, 어떤 때는 50대 대 30대이고, 선 신부님은 원주고 나는 서울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 문 목사님은 북한 사람이예요, 만주 출신. 남쪽 대 북쪽. 늘 아주 재미있는 조합이 되었어요. 석 달은 그렇게 아웅다웅을 했는데, 우리는 셋이 히브리어 본문에 대해서 만장일치 하기 전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2:1이 되면, 그날은 회의를 그만두었고. 1:1:1로 의견이 갈라져서 영 하나도 양보 안 할 때는 footnote에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음” 이렇게 넣기로 원칙을 그렇게 했어요.

세 사람이 분담하여 떠맡아서 초역을 처음에 했죠. 문 목사님은 본래 학교 때부터 전공이 예언서니까 예언서 부분. 선 신부님은 가톨릭이니가 ritual(전례)에 관한 제사 그런 거. 나는 history(역사서)하고 wisdom(지혜서) 그쪽을 하고. 분담해서 초역을 하고, 종로에 가서 거기 타이피스트가 먹지를 대고 타이핑 쳐서, 먹지로 해서 주면, 셋이 나눠 가지고, 독회를 1주일에 3일을 했죠.

아주 석기시대지. 그래서 각각의 인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4년 동안. 주로 이 사무실에서(사진 1) 번역 회의를 했고. 여름엔 하도 더워서 선 신부님 과천 수녀원에서 했고. 한 번은 거제도에서 가서, 성서공회에서 돈 내서 그렇게 했고. 거의 뭐 나는 머리가 그 때 희어진 거고. 내 생각에 인류 성경 번역 역사에서 내가 가장 youngest(가장 젊은 사람)일 거예요. 31살에 시

작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진, 이거 내가 3년 마치고 돌아갈 때 혜화동에서 찍은 사진(사진 5)이에요.

<사진 5> 곽노순, 선종완, 문익환  
(아래 왼쪽부터)



공동번역이란 프로젝트를, 닥터 나이다가 시작을 했죠. 전 세계에서 같은 번역을. 예전에 번역은 명사는 명사, 동사는 동사로 했지만, 뭐가 good translation이냐, 번역 철학에 대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 닥터 나이다가 좋아하는 비유가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을 적에 들은 사람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우리 한국 독자에게서 일으키게 번역하는 것이에요. 그게 criteria, criticism(원문에 대한 비평적 이해). same response(원문의 청중과 똑같은 이해와 반응)가, emotional response(똑같은 정서적인 감응)가 일어나게 하는 거.

우리 다 경험하지만, 영어에 대한 한글 자막 같은 거 보면, 지금은 아주 원숙해졌어요. 아주 잘들 해요. 예를 들면, ‘Oh, my God’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 말씀사’ 하고, ‘Jesus Christ’면 ‘제기랄’이고, 다 그렇

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영어 자막, 영어를 한국말로 자막을 만들 때, 다들 excellent expert(최고의 전문가)들이예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거기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할 때, 점심시간에, 그땐 자가용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할 적에도, 줄 서 있으면 앞 사람, 뒷 사람 하는 얘기만 듣지, living language(사람들 사이에 입말로 쓰이는 살아 있는 언어)가 뭔지. 전혀 다르죠. 특별히 이제 영어하고는 틀린 language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어에선 ‘it’s raining!’, 비가 온다고 하는 걸, ‘비가 오네(비 내리네, 지금 비 오네, 비 오는구나, 등등)’ 여러 가지로 해야 우리는 소통이 되지, 그냥 ‘비가 오다’라고 깨끗하게 중성적으로 하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팀이, 아시겠지만, 다 아는 얘기를 해도 용서하시라고. 예를 들면, ‘지옥에서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할 적에, 우리말은 이를 가는 게, 나를 왜 이런 데 보내냐 하는 원한의 표현이지만, 본래 그리스 사람들은 내가 어찌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땅을 치다’라고 해야 하는 거라고. 난, 이제, 구약이니까 신약 팀 건드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같은 공동번역이라도, - 영어를, 전화로, ‘곧 오겠다’고 할 때, ‘I’m coming’ 그래요. 그거를 ‘곧 오다’ 하면 안 돼요. ‘곧 갈게’ 이렇게 해야지. 요한계시록 맨 나중에, 예수께서, ‘곧 갈게’ 할 때, ‘I’m coming’이예요. 근데 그거를 ‘곧 온다’라고 하면 안 돼요. 간다고 해야지. 근데 이런 게 신약 팀에서 수없이 많이, - 예를 들어서, 똑같은 희랍어인데, 예수 엄마는 ‘동정녀’라고 해야 되고, 열 처녀 때는 ‘처녀’라고 하는 뉘센스가 있어요. 똑같은 희랍어 ‘처녀’인데 어떻게 예수 어머니를 처녀라고 하냐 해서 동정녀라고, 옛날 표현이라 하고.

예를 들어, 보세요, 바깥세상에서는 ‘희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영어를 바깥에서, ‘Do you have any good news?’(너 무슨 희소식 있어?)라고 했을 때, ‘Yes, I got a new job. So it’s good news.’(그래, 나 새로 취직했어. 이게 희소식이야.) 예수의 소식도 good news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희소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복음’이라고 이상한 표현을 한다고. language(사용하는 언어)가 틀리면 선교가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쓰는 말과 같은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을 고치지. 닥터 나이다가 했던 것이 이런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근데 특별히 한국에서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가 합심해서 한 건 good news(희소식)이겠지. 적어도 성경만

이라도 신교 구교가 함께 쓰는 게 얼마나 좋겠는가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대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아시아 전체, 홍콩, 필리핀 다들. 그때 갔던 게 이렇게 사진(사진 6, 7)으로 남아 있어요.

<사진 6>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대만 성서 번역 워크숍



<사진 7>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대만 성서 번역 워크숍



United Bible Societies(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번역 워크숍 때 사진이에요. 대만 타이중에서 했어요, 그때. 아시겠지만 그때 박창환 교수하고 나하고 찍은 거예요(사진 8). 이게 신약 팀 사진이에요.



<사진 8> (왼쪽부터) 김진만, 박창환, 곽노순



한 달 동안 대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번역 철학과 번역 테크닉에 대해서 총 네 파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번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 주로 교정을 했어요.

난 암튼, 우리 셋은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만 번역했지, 그리고 Ph.D.를 7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1973년에 미국으로 들어갔고. 난 4년만 봉사했어요. 1969년 8월에서 1973년 8월까지.

근데 선 신부님 돌아가시고부터 개인적으로 내가 guilty(죄책감)를 느끼는데, 정이 들어 가지고, 셋이, 처음에는 개신교 천주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건 석 달뿐이고, 4년 내내 거의 태초부터 무슨 한 팀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선 신부님은 한 11시쯤에 커피를 끓일 적에 한 번도 내가 먼저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재빨리 하셔서. 택시 탈 때도 한 번도 내가 그분을, 제일 연장자인데, 한 번도 먼저 타시도록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양보를 해서 날 먼저 태우고. 날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수녀들 시켜서 계란을 100개씩, 수녀원에서 계란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개신교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셋이, 우리가 아주, 불어 독어판 그때 당시에 천주교 Jerusalem Bible하고 Good New Bible하고 여러 가지 제일 많이 보지만, 우리는 히브리어밖에 사

실 몰라요. 사이드로 볼까말까. 독특한 걸 할 적에는 거의 신바람이 나서 번역했지요. 선 신부님 표현은, 신선 도끼 썩는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고. 어떤 때 끝날 쯤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다 해골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걸 맡는가 이렇게 (말)했지. 그 말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셋이 다 히브리어 전공자기 때문에 아주 열띠었고. 그렇게 다 하고 성서공회로 보내요. 김주병 총무님은 빨리 끝내기를 원해서, 이거 원고를 다시 안 줘요. 근데 우리는 몇 번이라도 더 보고 싶지. 어찌다 한 달쯤이나 있다가 다시 그걸 애걸복걸해서 다시 원고가 와서, 다시 보다가 어디에 틀리게 번역했다고 하면 식은땀이 나지. 우리 고생은 세상이 몰라. 그런데 왜 글이 안 나오냐 하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셋이 다 히브리어 전공자가, 성미가 똑같은 사람끼리, 서로 아끼는 그 지경이 됐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같은 걸 놓고 학문적인 것을 해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성경도 좋고. 그러니까 선 신부님도 천주교 선입견 전혀 번역에 반영을 안 했고. 우리도 그 개신교 고집하지 않고. 순전히 텍스트, 히브리어 가지고 싸웠지. 이런 건 아마 그 외에도 없을 거야. 서로, 우리도 천주교 이해하는 데 충분히 됐고, 그분도 개신교 이해를 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번역하면서 유창한 한국말을 배워서 썼어요. 이게 그대로 최종 본문까지 반영됐는지 몰라, 왜냐하면 국어 선생이 교정했기 때문에. 선 신부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 말이나 영어는 몽둥이 말이고 한국말은 비단 말이다. 나긋나긋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하느님’이라고 쓰자고 주장한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라고 하셔도, I don't care! 문맥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지, etymology, 어원이 구원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해도 좋아요. 왜 하느님이라고 했느냐, 그걸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언어학적으로도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아니고, 번역 역사학적으로 ‘하나님’이 바른 말이 아닌 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일반 언어 공동체에서 미국사람들이 ‘Oh, my God’, ‘God Bless’ 이렇게 해요. 성경에도 God이라고 한단 말이지. 히브리 사람도 이슬람 사람도. 근데 한국에서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지. ‘하느님 맙소사’라든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다른 거라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특별한 아들이라고 해서 ‘아달’이라고 한다면, 이건 명사지, 기독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하나님은 개념이 다르니까 (‘가드[God]’가 아니라) ‘게드[Ged]’라고 하자는 것과 똑같아. 그건 언어를 전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무슨 년센스, (무슨) 비이성적인 것을 저지르는가 하면, 예를 들면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해, 근데 아주 착한 사람이라서 ‘서람’이라고 한단 말이지. 명사가 같아야지 선교가 가능해요. 년센스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우선 암튼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야. 믿음이라고 할 때, 앞에 명사가 있고 믿음이라고 할 적이 있고. 예를 들면 임금님 또 선생님, 아드님 이렇게 할 적에, (‘님’이라는 글자) 앞이 명사예요. 명사에다가 존칭어미를 붙인 경우이지. 근데 이제 이거를 명사로 했을 적에는 앞에는 형용사 adjective가 오는 거고. 이때는 띄워도 말이 돼요. ‘임금’, ‘선생’, ‘아들’.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말이 되는가 보자고. 여기 ‘하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예수께서 인용한 탕자 비유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지 ‘하나와 아버지께’ 했냐고? 안 그래요? 우리 다 아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지, ‘하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명사로 쓴 적이 없어요. 세상에도 그렇고, 성서에도 없다고. 그런데 여기 이거를 명사를 형용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 ‘님’이라고 해봐. ‘그리운 님’, ‘사랑하는 님’, 이럴 때는 이게(‘님’이) 명사고 이게(‘사랑하는’이) 형용사라고.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면 ‘한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은 ‘하나 사람’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이것은 한글이 아니라고.

언어학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하나, 유일신이라고 하는 건 무식의 소치라고. ‘하나’를 나타내려면 한님이라고 해야 한글이지. ‘하나 사람’, ‘하나 아들’, 아니에요! 신약이나 구약에도 없지만, God을 하나라고 하는 것은 희랍의 플로티누스(Plotinus, 204/5년-270년)의 일자(一字)를 말하는 거예요. 일자라고. 예를 들면 ‘하나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탕자가 말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그런데 “하늘과” 하면서 하늘을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이렇게 했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를 ‘하나’(숫자 1)로 쓴 적이 없어요. one으로 쓴 적이 없어요, 다 heaven으로 썼지. God을 성경에 heaven이라고 말했지, one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우선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한글이 아니라고. 바깥에서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하늘이 우습지 않느냐’, ‘하늘’인데, 여기는 하나라고 하니. 사람이 5천만이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서 생겼는가, 성서번역학적으로, 우린 다 아시지만, 1885년에 로스 번역이 있었죠? 만주에서 영국 선교사가 와 가지고. 그때 영어사전 없었기 때문에 두만강 건너다니는 보따리 장사 데려다가 얼마 줄 테니까 네가 dictionary 노릇을 해라 그래서 했어요. 최초의 로스 번역이 있겠지! 전부 다 평안도 사투리에요. 해방 되고도 기독교의 주력은 다 이북에서 내려온 평양 사람들이고. 선교도 한양보다는 북한 평안도나 이런 데 더 많이 해서 기독교가 더 컸죠. 당연히 서울이라면 한양이라면 유교의 상류사회이고 표준말도 없었던 때, 이씨 조선 말에, 그럴 때 선교사가 평안도 사람 보부상을 데려다가, 이게 뭐냐 해서 중국 번역으로 한 게 있고, 물어봐서 했죠. 그걸 다 뒤졌어요. 로스 번역에 terminology를 어떻게 썼는가. “아달(아들)”이라고 하고 “오마니”, “비달길(비달기+ㄱ)”, “하날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1952년에, 전쟁 나 가지고, 부산 피난 가 있을 적에, 언제까지 평안도 사투리 말을 성경에 해야 되냐 해서, 그 당시 표준말로 하자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쳤냐 하면, “아들”로 고쳤고 “어머니”라고 했고 이걸 “비둘기”라고 하고 이걸 “하늘”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로스 번역에서는 “하날(하늘)”하면서 “하나님(하느님)”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걸 줄 다 알아요. 발음을 사투리로 ‘하느님’이라고 할 때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heaven을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one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아래 아(·) 자에다가 이렇게 (‘하나’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썼어야 한다고.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우리 신앙 역사 공동체에서는 다 heaven을 의미했지 one을 의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는 ‘신들’이라고 할 땐 여기다(gods) 쓰고 유일한 ‘신’은 여기다(God) 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 하면은 ‘들’을 붙일 수가 없어요. 무당도 알아요, 하느님은 유일한 존재라는 걸. 하느님이란 말 자체가 유일신을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하느님 얘기할 때 중국 하늘, 일본 하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돔 땅 하느님하고 모압 땅 하느님하고 이스라엘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하면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하나, 한 분! 이미 유일신 사상이 한국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로스 번역에도 발음은 평안도 사투리로 ‘하날’이라고 했지만 semantic은 ‘하늘[하늘]’이라고 했지, it's not one. one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공동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재밌어요, 이게.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고 다 (피난)가 가지고 부산에서 다 표준말로 고쳤어요, 성경 번역할 적에.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하느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익숙해서 ‘하나님’이라고 발음을 했지만 뜻은 heaven 이라고 알면 좋은데, one을 생각하니까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천주교에서는 ‘천주’라고 발음했어요. 근데 여기는 평안도 사투리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깝죠. 이게(‘천주’) 가까워요? 이 사람들이 큰 양보를 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천주교는 교회에서도 하느님이고 바깥에서도 하느님이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선교가 불가능해요. 저쪽엔 ‘하느님’이라고 하고 여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선교에서는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을 ‘서람’으로 발음하라든지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한갑수 씨도 있고, 음식점에서, 신약 팀하고 구약 팀하고 어휘 조절. 신약과 구약이 같아야 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내가 하느님이라고 제일 주장한 이유. 식탁에서도 내가 이렇게 거의 말을 다 하고. 「기독교사상」에 내가 내고.4) UBS에도 발표를 하고.5)

궁정로교회 거기서 이분들이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반대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0명, 500명. 나도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유일신이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한국말이면 하느님이어야 되지. 하나면 플로티누스의 ‘하나(Hen)’, 플로티누스의 One God이지.

지금 이 얘기한 걸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one’으로 생각하면 impossible Korean이다. 한국말이라면 ‘하느님’이어야 한다. 성경에는 하나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번역서 1885년부터 ‘상제’라고 한문 썼을 때도 일자(一字)라고 한 적이 없어. 옥황상제는 한 분이지. 그러니까 한문, 한글까지 할 것 없이 번역을 내가 다 뒤졌어요. 일관되게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게, heaven을 뜻했지, one을 뜻한 적이 없었어요. heaven에는 one이 내포되어 있었지.

한 날 종로 가서 점심 먹으러 갔더니 그때 선 신부님이 50대인데, 70먹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냉면 사줘서 먹었어요. 요즘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다 자기들은 중부지방에 갔더니 다 하느님이라고 하고. 누가 one을 말한 적이 어디 있냐 말이지. 하나님, 두님, 세님 ... ‘님’ 앞에다가 수를 적은 적도 없거니와, 수십 군데를 봐도 넌센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난 열의가 없어요, 그걸 고치고 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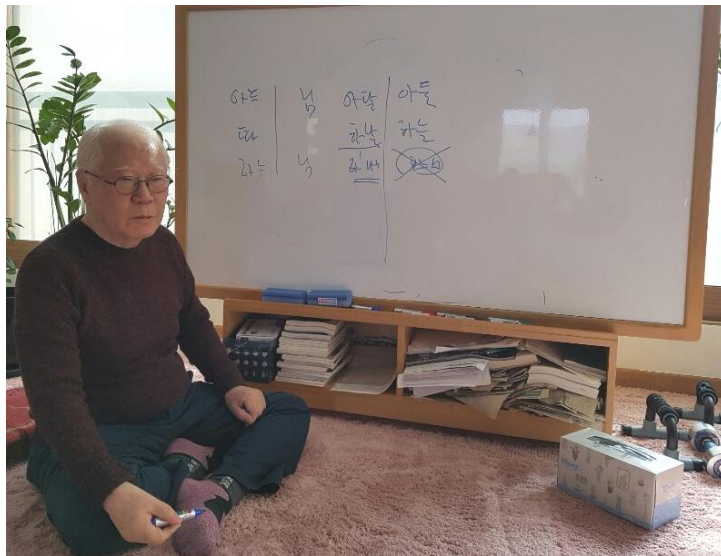
4) 곽노순, “韓國教會와 ‘하나님’ 稱號”, 「기독교사상」 15:2 (1971), 105-113; 곽노순, “韓國教會와 ‘하나님’ 稱號 (II)”, 「기독교사상」 15:3 (1971), 121-124.

5) Nosoon Kwak, “The Korean Bible: A Linguistic Diagnosis”, *The Bible Translator* 26:3 (1975), 301-307; Nosoon Kwak, “The Korean Bible: New Translations”, *The Bible Translator* 27:1 (1976), 121-127.

다음은 마테오리치 때부터 중국에서는 천(天)이라고 했는데, 마테오리치가 중국어로 번역할 때 God을 왜 천주로 했느냐?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은데 보면, 예수께서 얘기를 할 적에 하느님을 “하늘과 땅의 주”라고 했어, Lord of heaven and earth. 거기서 따 가지고 ‘천주’라고 했지. 주로 역사에는 천주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테오리치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천주님’이라고 했지. 틀린 거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성경의 패러다임에 천주라는 게 있었으니까, Lord of heaven이라고. 마테오리치가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천주라고, 중국 역사에 없는 말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주라고 발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면, 거의 이들이 큰 양보를 한 것이죠. 중요한 건 글자가 아니라 발음 아닙니까? ‘천주님’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했으면 큰 아량을 갖고 양보한 겁니다.

우리 셋이 다 히브리어 전공자고, 우린 하느님 앞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사진 9> ‘하느님’을 써야 하는 까닭을 설명하는  
곽노순 교수



<주제어>(Keywords)

공동번역성서, 하나님, 하느님, 문익환, 선종완.

The Common Korea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Hananim, Hanunim,  
Ik-Hwan Moon, Jongwan Sun.

<참고문헌>(References)

- 곽노순, “韓國教會와 ‘하나님’ 稱號”, 「기독교사상」 15:2 (1971), 105-113.
- 곽노순, “韓國教會와 ‘하나님’ 稱號 (II)”, 「기독교사상」 15:3 (1971), 121-124.
- 박창환, “내가 경험한 한글 성경 번역의 뒤편길”, 「성경원문연구」 35 (2014), 385-391.
- Kwak, Nosoon, “The Korean Bible: A Linguistic Diagnosis”, *The Bible Translator* 26:3 (1975), 301-307.
- Kwak, Nosoon, “The Korean Bible: New Translations”, *The Bible Translator* 27:1 (1976), 121-127.